

포토뉴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수공 경기동북권지사서 성품 기탁 받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경기동북권지사가 최근 지역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 물감 침구세트 17개를 전달했다. 사진은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경기도가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인사발
경기도가 6.25(목) 10:00 평생학습관 한울림강연장에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박형덕 시장이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모습.



하남시, 청년정책 발굴 워크숍
경기 하남시가 최근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장에 반영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우리동네 청년정책 실험실' 청년 정책 발굴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은 워크숍 진행 모습.



인천 동구자원봉사센터 캐λλι아봉사단, 재능나눔 활동
인천 동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재능대학 캐λλι아봉사단이 최근 동구자원봉사센터 활동처 관리자 20명을 대상으로 제물포구 통합 관련 안내 교육을 진행했고 재능나눔 활동을 함께 펼쳤다. 사진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헌신·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천시, 6.25전쟁 기념식 개최 '이천의 호국영웅' 영상 상영도

경기 이천시시가 최근 빌라드아모르 이천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76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경희 시장, 박병서 이천시의회 의장, 최완철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와 이천시지회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도·시의원, 6.3 지방선거 당선자, 군 관계자 및 기관·사회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항전용사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사진 전시가 마련됐으며, 참전유공자 포로탈환 사업을 활발한 '이천의 호국영웅'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시켰다. 기념식은 국가보훈 유공자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기념사, 회고사, 격려사, 참전유공자 소개영상 상영, 기념공연,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쟁의 아픔과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 시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소중한 결실"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으며, 포항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정홍 기자 mjh@siminilbo.co.kr



기념식에서 김경희 시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대학자 이·신사임당 정신 공감

파주시, 10월까지 울곡 프로 운영

경기 파주시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6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일환으로 오는 10월까지 파주 이이 유적에서 '울곡 코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울곡 코드'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대학자 울곡 이이와 신사임당의 삶과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교육·체험·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역사적 인물의 정신을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풀어내 시민들이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울곡의 효심 이야기를 배우고 요리 체험을

진행하는 '효의 뿌리를 찾아서' ▲문답법을 통해 울곡의 공부법을 체험하는 '구도장원공의 지혜' ▲자경문을 주제로 밋글씨(캘리그래피)와 '나만의 지경문' 작성을 해보는 '울곡과 마주하다' ▲공연을 통해 이이 유적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해석한 공연 프로그램 '울곡의 종류' ▲모바일 입부 수행과 달리기를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 '울곡 위드(With) 런!' 등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파주 이이 유적에 담긴 울곡 이이와 신사임당의 정신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피주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내일 세대공감 실버뮤지컬 공연

성동구, 초대기수 무대도

서울 성동구가 30일 오후 4시 소말아트홀에서 실버뮤지컬 '청춘과 추억'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성동구 실버뮤지컬 출연자 12명 등이 참여하는 세대공감형 문화공연으로, 노인 세대의 추억과 삶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는 공연으로 마련된다.

공연은 '청춘의 기억', '삶의 회로라프', '동행과 축적' 등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음악과 이야기로 엮어 구성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추억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해 세대 간 공감을 이끄는 것과 동시에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공연에는 '효녀가수 이수나'의 특별공연도 함께 마련돼 노인 세대는 물론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실버뮤지컬 공연은 성동구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버뮤지컬은 어르신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삶과 추억, 열정을 무대 위에서 함께 나누는 뜻깊은 공연"이라고 말했다.

박소진 기자 zin@siminilbo.co.kr

후원자-아동 깊은 유대감... 소통도 흥민

경남도, 21번째 만남의 날 가져

NCD이노스 야구 경기도 관람

경남도는 지난 28일 오후 5시 창원 NCD파크에서 보보대상야구와 후원자가 함께하는 '2026년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 주관했으며, 후원자에게는 나눔의 보람을, 아동에게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그룹홈·양육시설·가정위탁 등 10개 기관의 보호대상아동, 후원자 등 총 156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후원자에 대한 도지사 표

창, 응원용품 등을 지원하며 뜻깊게 했다.

이날의 진짜 MVP는 타석에 선 선수가 아니었다.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매달 후원을 이어온 이틀, 바로 그라티스 밖의 후원자들이었다. 후원자와 아동들은 야구를 함께 관람하며 따뜻한 교감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도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결연 후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김경희 기자 kij@siminilbo.co.kr

폭염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 보내길...

인천 연수구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가구에 선품기 전달

인천 연수구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지역내 주거환경 취약가구에 선품기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주거 공간이 협소하

고 선거운 선품기를 지원하고, 대상 가구의 안부를 지원했다.

연미자 협의체 위원장은 "우리가 전달한 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라며 "이런 선품기 지원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문신식 기자 mcs@siminilbo.co.kr

청년 음악가 음원 발매 기념 공연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최근 '모래내극락'(수석로4길 7, 2층)에서 '얼라이브 인디뮤지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음악가 음원 발매 기념

공연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얼라이브 인디뮤지션'은 서대문구가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아티스트를 발굴해 음원 및 음반 제작,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청년 음악가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날 공연은 올해 선정된 신인

아티스트 4팀에게 독자적인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새롭게 발매된 음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쇼케이스 형태로 기획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120여명의 관객들은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높은 몰입과 호응 속에 공연을 즐겼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IFEZ
글로벌 협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글로벌비즈니스 허브 IFEZ
혁신 허브 IFEZ

INCHEON